

하림, 동물복지 인증사업 선도한다

현재 6개 농장 인증 완료 올해 14개 농장 추가 2018년까지 70개 완료

하림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미래 닭고기 산업의 핵심 과제인 동물복지 사업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림은 닭들도 동물의 5대 자유인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닭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 사업이 도입돼 사육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5년 9월 농림회 사법인 유휴화사 에이치비씨 농장을 최초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는데 이어 익산 무항농장 등 총 6개 농장의 인증을 완료했고 7월말까지 남원 찬송농장 등 5개 농장이 추가로 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금안농원 등 9개 농장이 예비사육 후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등 현재 15개 농장에서 동물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림은 또 2018년 말까지 전국 70개 계열 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을 완료하는 등 농장과 사육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

하림의 동물복지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비롯해 HACCP(위생안전관리통합인증), 이력관리제를 적용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천연재료의 식물성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닭 고유의 짙은 맛을 증진시켜주며 희대 및 짙블러를 설치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사육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패킷한 환경과 6시간 이상의 안정된 수면을 유도하며, 도축과정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스 질식사사사



하림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미래 닭고기 산업의 핵심과제인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부터 도계과정까지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하림은 이를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1%의 명품 닭고기인 '그리너스(Greeners)'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했다.

동물복지 첫 제품인 그리너스는 통닭 2종(800g, 1100g)과 닭볶음탕 용 1종(1kg)으로 생산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림 이문용 대표는 "동물복지는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되, 동물

의 고유한 습성을 최대한 유지해 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닭을 생산하는 사업"이라며 "생산부터 식탁까지 가장 완벽한 닭고기를 생산하는 동물복지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650여 계열 농가 중 32%(인 112개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 자연실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육계 175농가가 HACCP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동물복지 사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서... 장관상·인센티브 9000만원 받아

익산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9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철모 익산시부시장은 2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장관과 트로피를 수여 받았다.

일자리 공시제 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실천할 일자리 목표를 수립해 시민에게 공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중앙고용자문단에 의한

서면평가, PPT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유치에 총력을 다 해 29개 기업, 1,886억원의 투자유치성과, 1,25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 왔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기업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 취업박람회 등으로 청중장년층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선도대학, 창조일자리센터 등 중앙정부와 연계사업 추진에도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 9월2일 개최

개발도상국 아이들 돕기 행사

군산시는 오는 9월 2일 은파호수공원에서 '2017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하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로 전국의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1년부터 4km 국제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군산시도 지난 2016년 10월 '2016년 군산 국제 어린이마라톤대회'를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당시 1,300여명의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7년에도 순위와 관계없이 구간별 4개 코스(말라리아, 저체온증, 영양, 식수)를 체험하며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 식량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시는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와 함께 부대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난감 나눔 부스를 마련하고 각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참가신청은 8월 16일까지 '국제어린이마라톤 홈페이지(www.sc.or.kr/marathon)'를 통해 선착순으로 1,500명이며, 참가대상은 16세 이하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라오스, 우간다 지역 영유아 살리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중신, 임성택)는 24일 수송동행정복지센터에서 26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가졌다.

이날 각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후반기 진행될 사업방향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끝낸 회의에서는 특히 선진지 견학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사업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에 관한 논의,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체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로 지역사회 복지지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된 맞춤형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서천 '동백대교' 부분 개통 계획 연기

교통 혼잡 등 대비 완벽한 대책마련 후 개통키로

군산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과 충남서천을 연결하는 동백대교의 금년 7월 부분 개통 계획이 대형 화물차 등의 군산 시내 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완벽한 대책 마련 후로 미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백대교 부분개통을 검토해 온 군산시와 관계기관은 군산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가 근대역사박물관 앞 시내도로 진입 시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형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차 통행 제한 고장 틀 설치 등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18년 12월 준공 이전에, 금년 7월중 부분개통을 시행하고자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2.5m 높이의 고정 틀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할 규정이 없고 고정 틀로 인한 더 큰 교

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 양 시군 경찰서의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익산청의 판단을 종합하여 부분개통을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분 개통 시 군산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1일 7,700대에서 20,800대로 2.7배 증가되고 이중 대형 차량은 1,900대에서 5,200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대부분의 시민들도 완벽한 교통대책 없는 부분 개통을 반대해 온 것도 부분개통을 미루게 된 주된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산시는 "양 시군의 소통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분개통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완벽한 대책마련 후 개통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착공, 2018. 12월 준공하며, 총연장 3.18km에 2,372억원의 국비가 투자된 국가사업

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국도4호선과 군산지역 국도26호선을 연결함으로써 군산과 서천간 11km거리와 30분의 시간이 단축되고 연간 250여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국체전 개최 총주시 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2018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올해 전국체전 등이 개최되는 총주시를 방문해 경기장 현황 등 개최 준비상황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연 위원장 등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총주시 관계자로부터 총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 개선 등 준비상황에 대한 브리핑 청취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 전기응용기술연구소 - 미국 FemtoFab, Inc.

'LED용 렌즈설계기술' 협력 MOU

원광대학교 전기응용기술연구소와 미국 FemtoFab, Inc.가 '고정밀 3D프린터를 활용한 LED용 렌즈설계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최근 박대희 센터장이 보스턴에 있는 FemtoFab, Inc.를 방문해 체결한 MOU는 LED 광원용 렌즈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광대 전기응용기술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정운호 박사와 3D프린터의 고정밀화를 위한 기술교류를 해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LED 광원용 렌즈 제작기술을 고정밀 3D프린터를 이용해 상용화하기 위해 협업하고, 3D프린터에서 사용될 렌즈 제작용 재료와 최적 설계조건 연구를 비롯해 이를 지적 재산으로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원광대는 취업연계 LED과정 학생들의 해외 연수기회 확대, LED기술의 국제 협력 기여 등 전공 분야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